

수도권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 ... 광주·전남도 '비상'

하루 확진자 1200명 대 역대 최악 ... 수도권서 전국으로 번져 주말·휴일 지역사회 4차 집단감염의 고비 ... 방역수칙 지켜야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전염성 강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를 타고 역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꼽히는 광주·전남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2면>
특히 최근 1주간 호남권(광주·전남·전북)에서 가족·지인 모임을 중심으로 전주대비 20% 가까이 신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주말과 휴일이 지역 사회 4차 집단감염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

망도 나온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방역당국은 외출과 모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쓰기과 손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광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 주간(6월 27~7월 3일) 신규 확진자 발생은 총 117명으로 전

국의 2.4%다. 전주 대비 19명(19.4%)이 증가했으며, 가족·지인모임 등 소규모 집단 관련 감염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광주는 같은 기간 총 39명이 발생해 전주 대비 14명(56.0%)이 증가했다. 호남권 발생자의 경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0대 감염이 부쩍 늘었다. 최근 1주간 20~29세 발생률이 23.1%로 가장 높았으며,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10.3%로 전주대비 7% 감소했다. 감염경로는 가족간 전파가 38.5%로 가장 높았으며, 지인 접촉 26.9% 등의 순이었다. 전남 방역당국은 수도권 확진자 급증을 우려하며 지역에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최근 이틀(6, 7일)간 발생한 지역 감염 신규 확진자 16명 가운데 절반인 8명이 수도권 등 타지역 접촉자라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전남 1685번(영광), 1686번(여수), 1689번(신안), 1690번(광양), 1692번(나주), 1677번(순천), 1681번(해남), 1684번(장성) 등 8명은 모두 최근 경기 성남·안양·서울 도봉구·노원구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거나 수도권, 영남권 등에서 일을 하다 돌아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 등 감염자가 폭증하는 지역에서 광주와 전남으로 코로나가 순식간에 번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수도권 확산세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국 확산의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단계인 4단계 기준에 진입한 상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오후 6시 이후로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허용되고 행사·집회와 대면 종교행사, 스포츠 현장관람이 금지되는 등 시민 생활에 매우 큰 제약이 더해진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는 1275명으로, 전남(1212명)에 이어 이틀 연속 1200명대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의 최대 발생 기록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 호우피해 682억 잠정 집계 ...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김승남 의원 등 지역 정치권 "수해복구비 2차 추경 포함을"

지난 5~7일 폭풍탄성 장맛비가 강타한 전남지역의 재산 피해액이 682억원 규모로 잠정 집계됐다.

일요일인 11일까지 장맛비가 예보돼 있는 데다 피해 조사가 계속 이뤄지는 상황인 탓에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수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지원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까지 집계된 잠정 피해액은 공공분야 322억원, 민간(사유)분야 360억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진 280억원, 해남 258억원, 진도 81억원, 장흥 40억원 등이다. 이번 호우가 짧은 기간 해안지역에 집중되면서 재산피해도 강진, 해남, 진도, 장흥 등 남해안 지역에 집중됐다.

주택 471동, 농지 2만4937ha(7500여만 평), 축산 122농가, 수산 28어가 등 사유시설 분야에서 360억원의 피해가 났다. 공공시설인 도로와 하천, 상하수도 등 162건에서 32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이번 집중호우 당시 산사태, 익사 등 사고로 숨진 3명의 유족에 도민안전 공제보험금을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재난지원금 등도 신속 지원키로 했다. 이재민 495세대 839명에게는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담요·간소복·구호 세트 등 응급 구호 물품도 지급했다. 주택 파손 및 침수 피해 주민에게는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고, 최대 16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최대 2억원의 주택개량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주거생활 공간이 침



8일 오전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자원봉사자들이 이번 장맛비로 수해를 입은 장흥 덕촌마을을 찾아 주민들의 이불과 옷가지 등을 세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수돼 수리가 필요한 주택에는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수산 분야는 신속하고 빠짐없는 피해조사를 추진, 농약대(ha당 100만원), 대파대(ha당 200만 원) 등 재난지원금을 지

급해 생계안정과 피해복구를 돕기로 했다. 공공시설의 경우 현재까지 침수·파손된 도로 68개소는 응급복구를 마치고 통행을 재개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침수된 진도 조급시장은 배수를 마치고 지난 7일부터 정상 운영 중이다. 피해를 본 70여 점포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과 경영안정자금 융자(보증지원)를 통해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농축수산물물을 제외한 재산피해액이 시군별 45억~90억 원 이상이면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토록 정부에 강력

건의하고, 자연재해 피해금액 산정 시 농축수산물 등 피해액도 포함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기로 했다.

지역정치권에서도 전남 남해안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지원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당한 전남 남해안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항구적 수해 복구를 위해 관련 사업비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 예결위위원회에 촉구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금메달 7·종합 10위 목표
도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
광주·전남 선수 임원 53명 참가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태극전사들이 선전을 다짐하며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랐다. <관련 기사 18면>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은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결단식을 하고 보름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열렸어야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1년 미뤄진 도쿄올림픽은 오는 23일 개막해 8월 8일까지 개최된다.

세계 205개국 1만5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33개 정식 종목에서 금메달 339개를 놓고 기량을 겨룬다.

우리나라는 29개 종목에 선수단 354명(선수 232명·임원 122명)을 파견해 금메달 7개 이상 획득을 노린다. 김재우 전남도체육회장이 대한민국 선수지원단장으로 참가하는 것을 비롯 광주·전남에서는 각각 21명, 32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하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우리는 스포츠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믿는다. 스포츠 영웅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줬다"며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장단위 단장은 "경기장 안에서는 정정당당하게 멋진 승부를 하고, 경기장 밖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겠다"면서 "스포츠 선진국인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께 스포츠를 통한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단 주장은 5회 연속 올림픽 출전에 빛나는 '사격 황제' 진종오와 여자 배구 간판스타 김연경이 맡는다. 김연경은 수영 유망주 황선우와 개회식 기수로도 선정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쫘뫘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쫘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아르레 카운셀링룸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